



경남 지역별 아동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을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아동학대 실태 및 지원 방안¹⁾

01.

경남 지역별 아동학대 실태 분석 개요

02.

지역별 아동학대 실태 분석 결과

03.

경남 지역별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제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을 의미함
-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3,932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7.6% 증가함. 2021년 경남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2,848건으로 2020년(1,743건) 대비 61.2%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높음
- 경남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발견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 현황을 살펴본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함. 특히 경남 지역에서 발견하고 있는 아동학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권역별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01. 경남 지역별 아동학대 실태 분석 개요

■ 조사 개요

2021년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6개 기관)²⁾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1,894개 사례 분석³⁾ 통해 경상남도 시·군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⁴⁾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봄. 분석자료는 '21년도 아동학대사례이므로 평균적인 경남 현황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해석시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분석 결과를 특정 지역의 고유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1) 본 브리프는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2)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함

3) 전체 분석 대상 사례는 1,894건이지만 응답 여부에 따라 항목별 분석 대상수의 차이는 있음

4)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1천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로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함. 이는 실제 '발생률'과 다를 수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적합함

■ 조사 항목

- 분석에 사용된 아동학대사례 변수는 아동학대 피해자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아동학대 사건 특성이 포함됨
- 아동학대 지역별 실태 분석은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18개 시군을 동부와 서부, 그리고 시·군 여부에 따라 총 4개 지역으로 구분함⁵⁾

표1 경상남도 권역 구분

권역 구분	포함 시군
동부-시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동부-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서부-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서부-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02. 지역별 아동학대 실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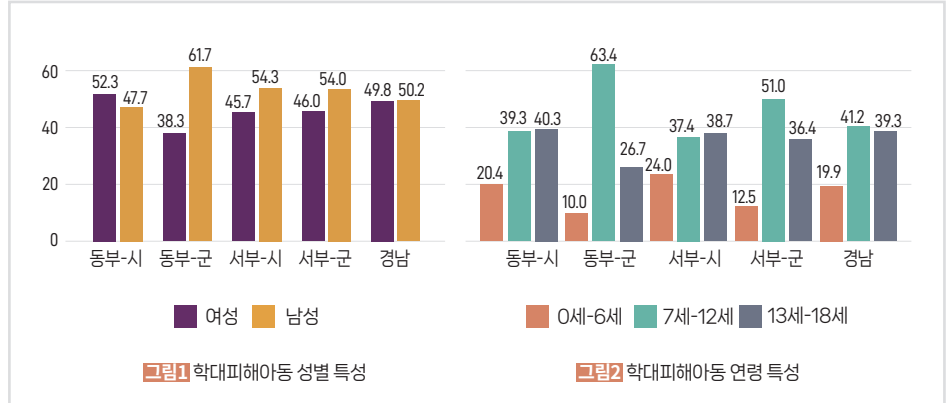
1) 지역별 학대피해 아동 특성

- 경남 전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은 여성(49.8%)과 남성(50.2%) 간의 차이가 없지만, 권역별로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차이가 확인됨
- '동부-군'은 여성(38.3%)보다 남성(61.7%)이 23.4%나 많고, 이어 '서부-시'는 8.6%(여성45.7%, 남성 54.3%), '서부-군'은 8.0%(여성 46.0%, 남성 54.0%) 많은 것으로 확인됨. 한편, '동부-시'는 다른 세 지역과 달리 학대아동 성별이 남성(47.7%)보다 여성(52.3%)이 높게 나타남

(단위: %)

그림1 학대피해아동 성별 특성

그림2 학대피해아동 연령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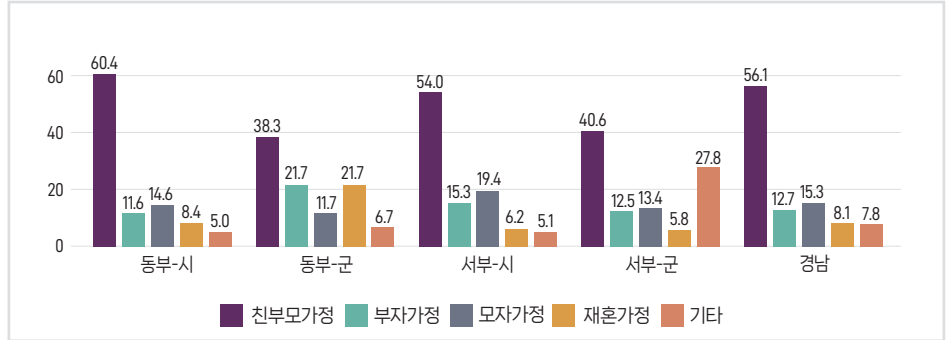
-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남 전체는 13세(10.4%)와 14세(10.4%)가 가장 많고, 이어 12세 8.7%, 11세 8.2% 순으로 피해아동이 많아 중학생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시'는 14세가 11.5%, '동부-군'은 8세 및 10세 16.7%, '서부-시'는 13세 12.9% '서부-군'은 12세가 17.0%로 학대피해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나, 군지역 피해 아동 연령이 시지역 피해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경남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사례 중 19.9%는 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로 확인됨. 또한 모든 권역에서 취학아동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미취학 아동보다 높음

5) 동부-서부 지역 구분의 경우 명확한 지역 구분이 없어, 경남서부세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함

- 권역별 미취학아동 학대 발견율은 '서부-시'가 24.0%로 가장 높고, '동부-시' 20.4%, '서부-군' 12.5%, '동부-군' 10.0% 순으로 나타나, 미취학아동 아동학대 발견은 군지역보다 시지역이 많음

(단위: %)

그림3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유형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경남 전체(56.1%) 및 각 권역 모두 친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음. 특히 4개 권역 중 친부모가정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부-시'가 6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부-시' 54.0%, '서부-군' 40.6%, '동부-군' 3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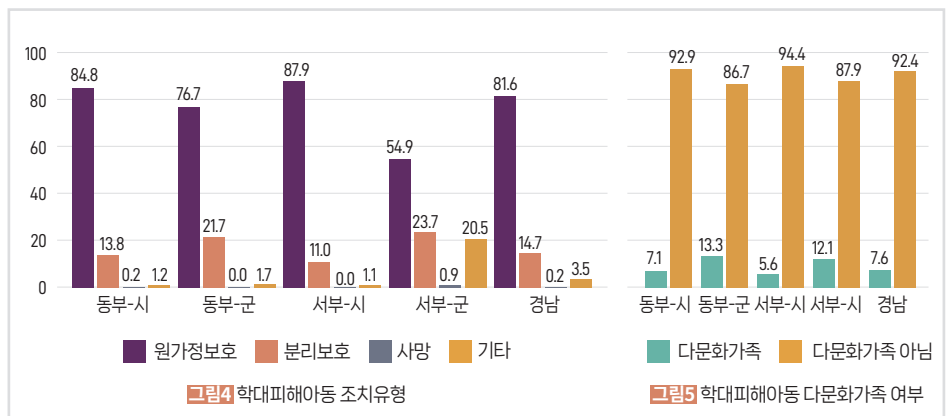
- 친부모가정 다음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가족유형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으로 '동부-군'은 부자가정(21.7%)이 모자가정(11.7%)보다 높고 다른 세 개 권역은 모두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 발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타' 가족유형은 미혼부모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단위: %)

그림4 학대피해아동 조치유형

그림5 학대피해아동 다문화가족 여부



- 학대피해아동의 다문화가족 여부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아동학대 사례 중 7.6%가 다문화가족에서 발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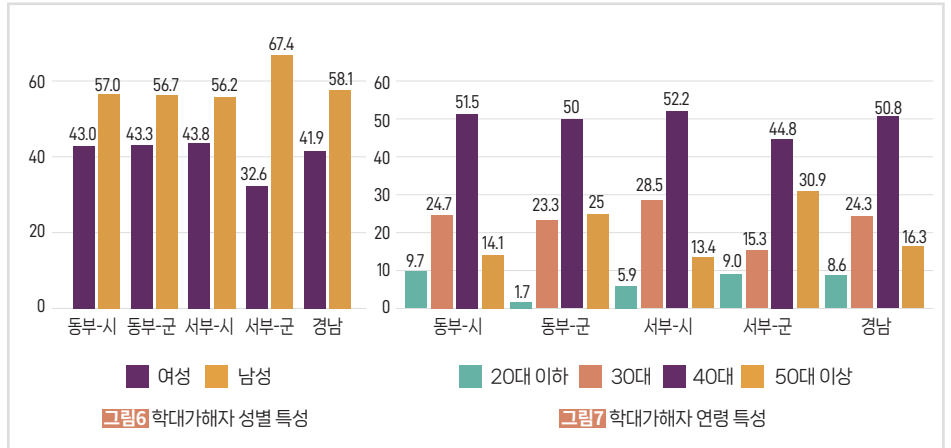
- 한편, 경남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는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혜림 외, 2020), 일반가족보다 다문화가족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의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발견 비율이 높게 확인됨

2) 지역별 가해자 특성

- 경남 전체 아동학대가해자 중 41.9%는 여성, 남성은 58.1%로 확인됨
- 모든 권역에서 학대가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서부-군'(67.4%) 권역은 남성과 여성 간의 비율 차이가 34.8%로 나타나 남성 가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한편, 다른 세 권역은 학대가해자의 성별 차이가 14.0% 내외로 확인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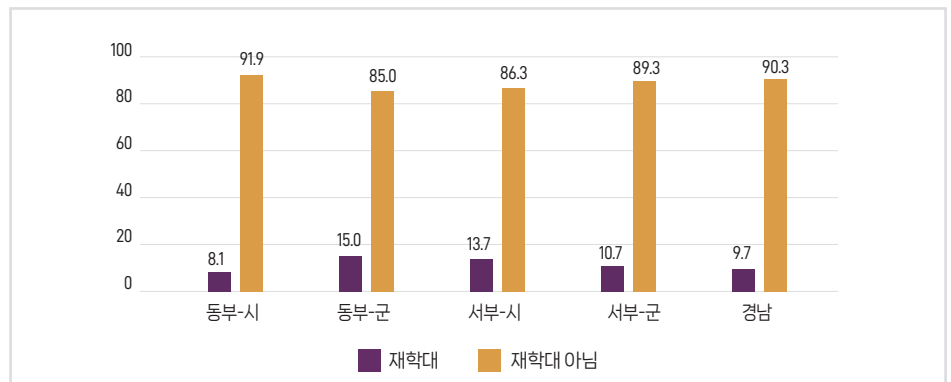
그림6 학대가해자 성별 특성
그림7 학대가해자 연령 특성



- 학대가해자의 연령별 특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아동학대가해자 중 절반이 40대(50.8%)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 30대 24.3%, 50대 이상 16.3%, 20대 이하 8.6% 순으로 나타남
- 모든 권역에서 40대 학대가해자가 가장 많음. 구체적으로는 '서부-시'가 52.2%로 가장 많고 '서부-군'이 44.8%로 가장 적음.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로 '동부-시'(24.7%), '동부-군'(23.3%), '서부-군'(28.5%) 세 권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서부-군'은 40대 다음으로 50대 이상이 30.9%를 차지해, 세 권역과 다른 연령별 특성이 확인됨
- 학대가해자의 재학대 여부를 경남 전체 평균으로 살펴볼 때, 아동학대가해자 중 9.7%가 재학대 가해자로 확인됨
- 학대가해자 중 재학대인 경우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부-군'으로 전체 아동학대가해자 중 15.0%가 재학대를 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음으로 '서부-시' 13.7%, '서부-군' 10.7%, '동부-시' 8.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8 학대가해자의 재학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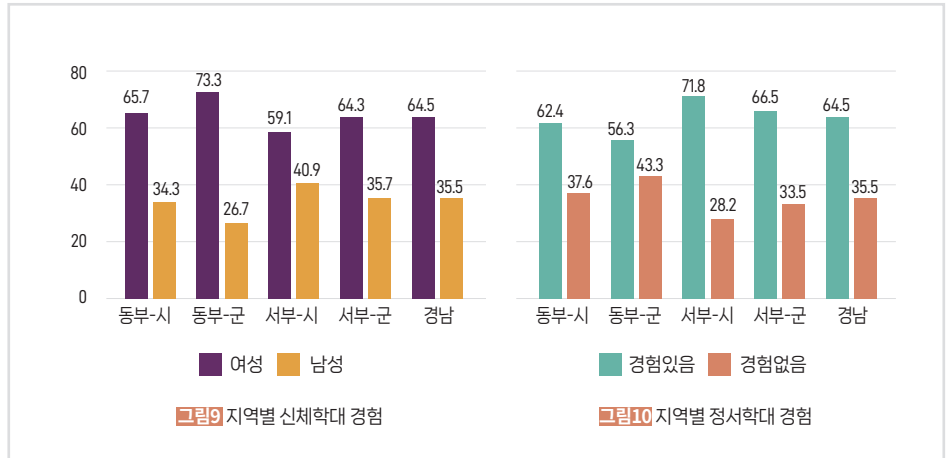


3) 지역별 아동학대 사건 특성

- 경남의 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 경험률을 살펴보면, 64.5%가 신체학대 유형으로 확인됨. 권역별로 살펴볼 경우, '동부-군' 73.3%, '동부-시' 65.7%, '서부-군' 64.3%, '서부-시' 59.1% 순으로 신체학대 경험률이 나타나, 동부 지역에서의 신체학대 경험률이 서부 지역보다 높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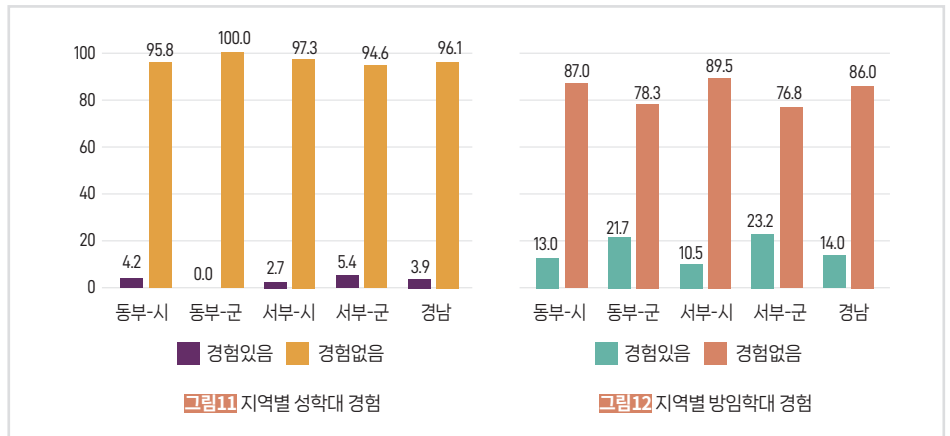
그림9 지역별 신체학대 경험
그림10 지역별 정서학대 경험



- 경남 학대피해아동 중 64.5%는 정서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 정서학대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시'로 71.8%이며, 이어 '서부-군'이 66.5%, '동부-시' 62.4%, '동부-군' 56.3%로 나타남. 정서학대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높음
 - 경남 학대피해아동 중 성학대를 경험한 사례는 3.9%로 확인됨
 -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부-군' 권역이 5.4%로 가장 높고, '동부-시' 4.2%, '서부-시' 2.7% 순으로 성학대 경험률이 나타남
 - 경남 학대피해아동 중 방임을 경험한 경우는 14.0%로 확인됨
 -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서부-군' 지역이 23.2%로 가장 높고, 이어 '동부-군' 지역 21.7%, '동부-시' 13.0%, '서부-시' 10.5%로 나타나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의 방임 경험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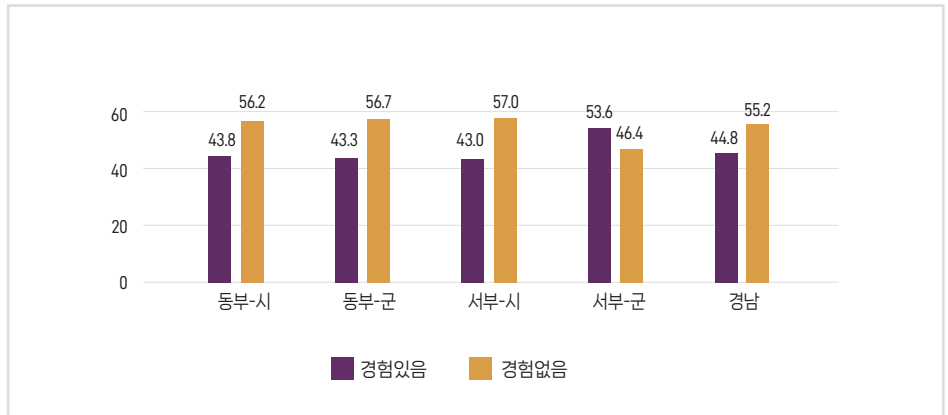
(단위:%)

그림11 지역별 성학대 경험
그림12 지역별 방임학대 경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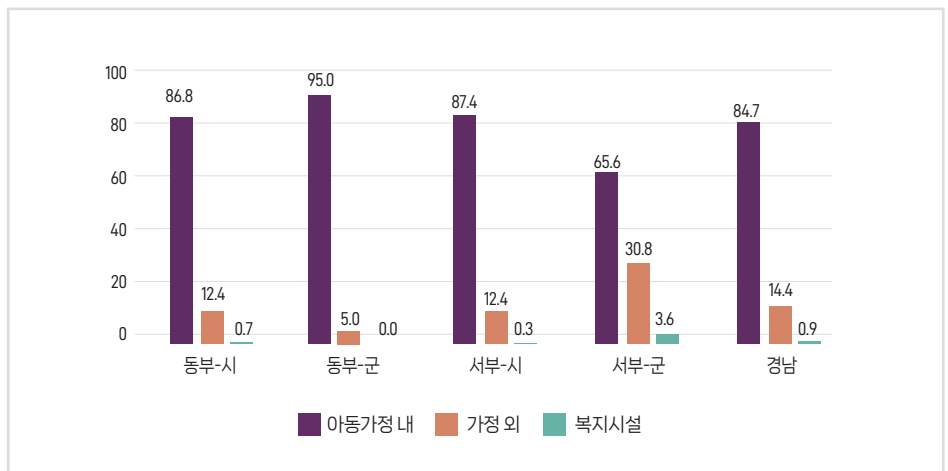
그림13 지역별 중복학대 경험



- 중복학대는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 중 두 개 이상을 중복으로 경험한 사례로, 경남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44.8%가 중복학대로 확인됨
- 중복학대 경험률은 '서부-군'이 53.6%로 가장 높고, 이외 '동부-시(43.8%)'와 '동부-군(43.3%)', 그리고 '서부-시(43.0%)'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경남의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4.7%로 가장 많고, 가정 외 14.4%, 복지시설 0.9%로 나타남
- '동부-시'와 '서부-시'의 경우 피해아동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견 비율이 각각 86.8%, 87.4%이고, 가정 외는 12.4%로 확인돼 학대 발생 장소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동부-군' 지역은 대다수가(95.0%) 가정 내 아동학대였고, '서부-군'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 발견율이 65.6%에 불과함. 대신 '서부-군' 지역은 전체 아동학대 중 30.8%가 가정 외 아동학대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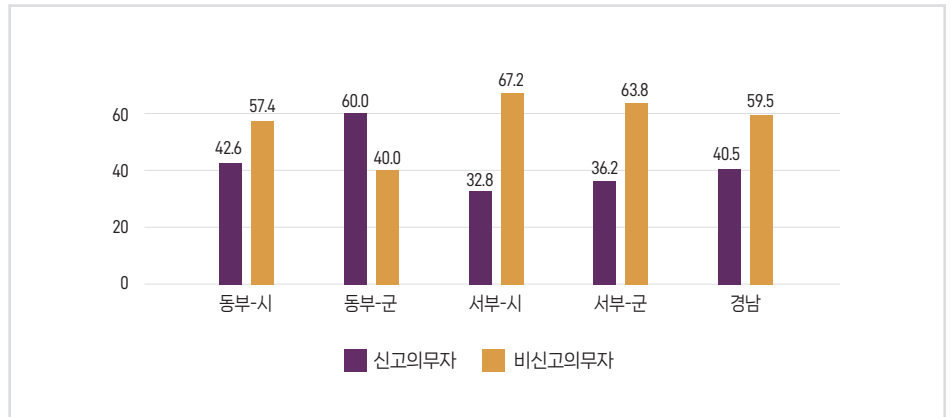
(단위:%)

그림14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장소 특성



(단위:%)

그림 15 아동학대 신고에서의 지역별 신고의무자 비율



- 경남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0.5%로 절반이 되지 않음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부-군'으로 60.0%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발견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됨. 다음으로 '동부-시' 42.6%, '서부-군' 36.2%, '서부-시' 32.8% 순으로 나타나,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높음

03. 경남 지역별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제

• 시군간 지역별 격차완화

-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신고사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군지역보다 시지역의 발견율이 높음 이는 시지역 내 미취학 아동 수가 많은데 따른 인구학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아동학대 발견에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데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아동학대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고, '동부-군' 지역의 경우 부자가정에서의 학대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등 성별에 따른 학대 예방 교육 및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아동학대 특성은 권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분석에 따르면 동부와 서부 지역의 차이보다 시지역과 군지역 간의 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시지역보다 군지역에서의 분리 보호가 더 많았고, 피해 아동이 다문화가정인 경우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아동학대 유형에서도 군지역의 경우 방임 형태의 학대 발견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간 차이를 보임. 한편, 시지역은 군지역보다 정서학대 유형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동부와 서부라는 지리적 위치 특성보다 시와 군단위라는 행정 특성이 아동학대와 더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음

(1) 군지역

- 결과에서 나타난 시지역과 군지역 간의 아동학대 발견 특징의 차이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현재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경남 18개 시군 중 현재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향후 통영시와 거제시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또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천시로 이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밀양시를 제외한 경남 전 시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서게 됨
- 시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로 인해 향후 광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구역은 군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측면에서 광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사업은 군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군지역의 경우, 방임 발견 비율이 높고 특히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 이와 관련한 예방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 또한 시지역보다 매우 낮아 군지역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함
- 또한 군지역 특성을 고려할 경우, 군지역 예방사업은 지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안으로 나아가야 함. 경남 18개 시군별로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지역 사회 네트워크(단체 및 모임)를 활용한 예방사업 활성화가 더욱 필요함
- 군단위 지역사회 내 조성되어 있는 단체 및 모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해당 단체가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견 및 예방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여야 함
- 한편, 군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다수는 동부권역에 위치해 있음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를 설치하여 서부-군지역에 대한 아동학대 관리가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서부-군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남성 가해가 비율이 매우 높고 50대 가해자 비율 또한 매우 높아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시지역

- 시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지역별 아동학대 발견 특징을 고려한 예방사업 운영이 필요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지역은 미취학 아동학대 및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군지역보다 높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 무엇보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특히 정서학대) 발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정 관리가 필요함. 현재 일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기가정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담 회기 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위기가정 관리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음. 위기가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